

배신자를 위한 변명



전형일의
세상이야기

지난 2020년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결선에서 ‘배신자’를 불렀다. 자신을 떠나버린 연인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는 남자의 순정을 표현한 이 곡은 1969년 도성이 처음 노래했다. 보통 리메이크곡은 시대에 맞춰 가사나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나 ‘배신자’는 원곡 그대로다. 이 노래는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에게도 애창곡이 됐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정서적 감정으로 사용되던 ‘배신(背信)’은 서양에서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기독교에서 가롯 유다는 인류 최악의 배신자이다. 유다는 예수를 은화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 이후 그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 또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다.

역사적으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배신자의 상징이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구집권을 도모하자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를 암살했다. 암살에 가담한 14

명의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이 브루투스다. 브루투스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정부(情婦)였다. 아들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그를 친자처럼 대했다. 이 때문에 카이사르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였다. 이 문장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경구가 됐다.

서양에서 ‘배신자(betrayer)’ 인식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잘 나타나 있다. 서사시 ‘신곡’은 지옥·연옥·천당 3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지옥 편에서 가장 끔찍한 곳은 아래 9단계로 생전에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여기에는 배신의 대명사인 유다와 브루투스 그리고 역시 카이사르를 배반한 카시우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찌 배신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예수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수탉이 울기 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하였다. 이 역시 예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했다.

부활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예수는 예언만 했지, 예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

다가 가장 억울한 악역으로 택함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유다는 용서 못할 배신자로 기억되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다.

브루투스 역시 그 당시 일행과 함께 원로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어 판결문의 ‘잊어 버린다’(Amnestia)’에서 현재의 ‘사면’(Amnesty)’이란 단어가 파생됐다.

언제부터인가 ‘배신’이 우리 정치권의 전유물이 됐다. 정치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군(主君)의 뜻을 거스르거나 조직을 떠나면 ‘배신’이라고 한다. 아마도 ‘배신’을 예전 군주제의 ‘역적(逆賊)’의 개념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는 주군의 무능과 부패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신념은 변할 수 있고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전향이나 회개라고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변심하고 변절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인류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시작됐다.누구나 ‘배신’의 DNA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창업자의 명예회복, 조직의 신뢰회복은 별개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

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적 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범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3일) <http://www.saju4000.com>



취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김상회의四季

태백산, 민족의 심장

태백산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높이는 해발 1500미터 남짓으로 상징성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물과 생명의 근원이자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뿌리로 여겨진다. 옛사람들은 태백산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성한 산이라 부르면서 일부러 찾아와 참배를 올렸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태백산은 백두대간이라는 용맥이 남한 땅에서 강렬한 기운을 응축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성시하고 숭배해왔다. 태백산 자락에는 예로부터 명당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혈자리가 자리하며 산과 물의 생기가 모이는 자리로 맑고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혈자리는 정기가 맑고 강한 것으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산줄기가 마치 용이 몸을 감싸듯 산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서 물과 바람이 흐른다.

제단과 사찰이 많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상 부근의 천제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장소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천제단은 강력한 기운이 맺힌 혈 자리 위에 세워진 상징적인 장소로 자연의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온 곳이 태백산 신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단군의 맥락에서 보면 태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천손이 내려오는 통로이면서 나라를 세운 성지로 상징되고 있다. 태백산에 얹힌 전설도 많다. 옛날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는 신들이 내려와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며 길흉을 점지했다고 한다. 지금도 호랑이의 기운이 서린 산으로 여겨지며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검소소는 그곳에 살고 있던 용이 검을 물고 승천해서 그렇게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태백산은 심장과 같은 정기를 품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